

문화비축기지 2022 탱크예술제-산책자들

녹색게릴라 자연-미술 사계절 워크숍-2022 가을

GREEN GUERRILLA

nature-art

FOUR SEASON

WORKSHOP

2022

AUTUMN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산책자들 **Walkers**

2022 Oil Tank Culture Park Tank Art Festival – Walkers
2022.10.15–16

GREEN GUERRILLA nature-art FOUR SEASON WORKSHOP 2022 AUTUMN

주최: 문화비축기지

기획: 대안미술공간소나무 

강혜경 Heykyung kang-
고사리 Sari Go-
권오열 Oyeol Kwon-
김등용 Deungyong Kim-
김미련 Miryeon Kim-
김성미 Seongmi Kim-
김성아 Sung A Kim-
김순임 Soonim Kim-
박승현 Seunghyun Park-
박우찬 Uchan Park-
성상식 Sangsik Sung-
오혜린 Hyerin Oh-
안보미 Bomi Ahn-
이장욱 Jangwook Lee-
이지미 Jimi Lee-
이훈 Hoon Rhee-
이혜경 Hyekyung Lee-
임승균 Seungkyun Lim-
임정서 Jungsuh Sue Lim-
장은경 Eunkyong Jang-
전원길 Wongil Jeon-
정원연 Wonyeon Chung-
정승혜 Seunghea Jung-
조재원 Jaeweon Cho-
최예문 Yemoon Choi-
최용선 yongsun Choi-
최지은 Jieun Choi-
홍지희 Jihee Hong-
Alejandro Jaime Carbonel / Peru-
Anurak Tanyapalit / Thailand-
Carlosde Gredos / Spain-
Evelyn Grzinich / Estonia-
Jahanbakhsh Amirbeygi / Iran-
John Grzinich / Estonia-
Jordi Gonzalez / Spain-
JYoo Hyun Lee / USA, Korea-
Kaiqin Zhang / China-
Karin van der Molen / Netherlands-
Klega SaliGia / Germany-
Lynn Bennett Mackenzie / Scotland, UK-
Marty Miller / USA-
Mrugen Rathod / India-
Sergi Quiñonero / Spain-
Simon Whetham / UK-
Stridom van der Merwe / South Africa-
Takako Yamaguchi / Japan-
Tatsunori Fujii / Japan-
Uku Sepsivart / Estonia-
XIAO Li / China, Japan-
Zehra Khan / USA-

녹색게릴라

녹색게릴라는 대안미술공간 소나무가 주관하는 자연-미술 사계절 연구모임(GG地智워크숍)으로 자연-미술 워크숍, 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한다.

우리가 즐겨 자연을 찾는 것은 생성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의 흐름을 따라 공명하는 몸의 자연성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풀과 나무를 싹 틱워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땅, 물, 빛, 바람의 기운을 느끼고, 천지간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과 모든 물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빈 손과 빈 마음으로 자연을 맞이하고, 자유로운 몸짓으로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 자연과 더 붙어 생각하고 반응한다.

자연의 생명력이 나의 무심한 발상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자연과 예술은 하나로 통한다. 우리는 이 상태를 지지地智라 부른다. '지지'는 자연에 반응하는 인간의 소소한 행위의 결과이며 놀라움이다. 자연에서 생겨난 '지지'는 이내 사라지지만 다양한 표현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든다.

녹색게릴라는 지식의 횡포와 경쟁의 억압으로 부터 벗어나 자연스러운 자유 미술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갈 것이다. 자연 깊숙한 곳에서 동시대 미술 최전선에 이르는 녹색게릴라의 활동이 이 시대 예술계에 신선한 기운을 전하며, 땅의 지혜를 담은 '지지地智'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예술이 되길 소망한다.

Green Guerrilla

Green Guerrilla is a Nature-Art research group hosted by Art Space Sonahmoo. Green Guerrillas communicate through Four Season Nature-Art workshops(gg Workshop), exhibitions, and residency programs.

The reason we often enter into nature is to revive the nature of the body that resonates with the flow of nature that repeats creation and extinction. We feel the energy of the earth, water, light, and wind that spurts, grows, and bears grass and trees, and we listen to the sounds of living things and all objects between heaven and earth. We meet nature with empty hands and empty hearts, and think and react with nature to become one with nature with free gestures.

The moment nature's vitality strikes a harmonious balance with my humble idea, nature and art become one. We call this state the Green Guerrilla's 'gg'. 'gg' is the result and the surprise from small human actions in response to nature.

The 'gg' created in nature disappears in time, but it seeps into people's minds through various forms of expression. Green Guerrillas will free themselves from the tyranny of knowledge and the oppression of competition and open up together the possibility of natural free art. We hope that the activities of green guerrillas from the depths of nature to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art deliver a fresh energy to the art world of this time, and that 'gg 地智', which contains the wisdom of the earth, becomes the art that lives with people.



고사리 Sari Go



봉선화 물들듯 물들어, 2022



땅보기



하늘보기



길들여진 삶_1



길들여진 삶_3



가을 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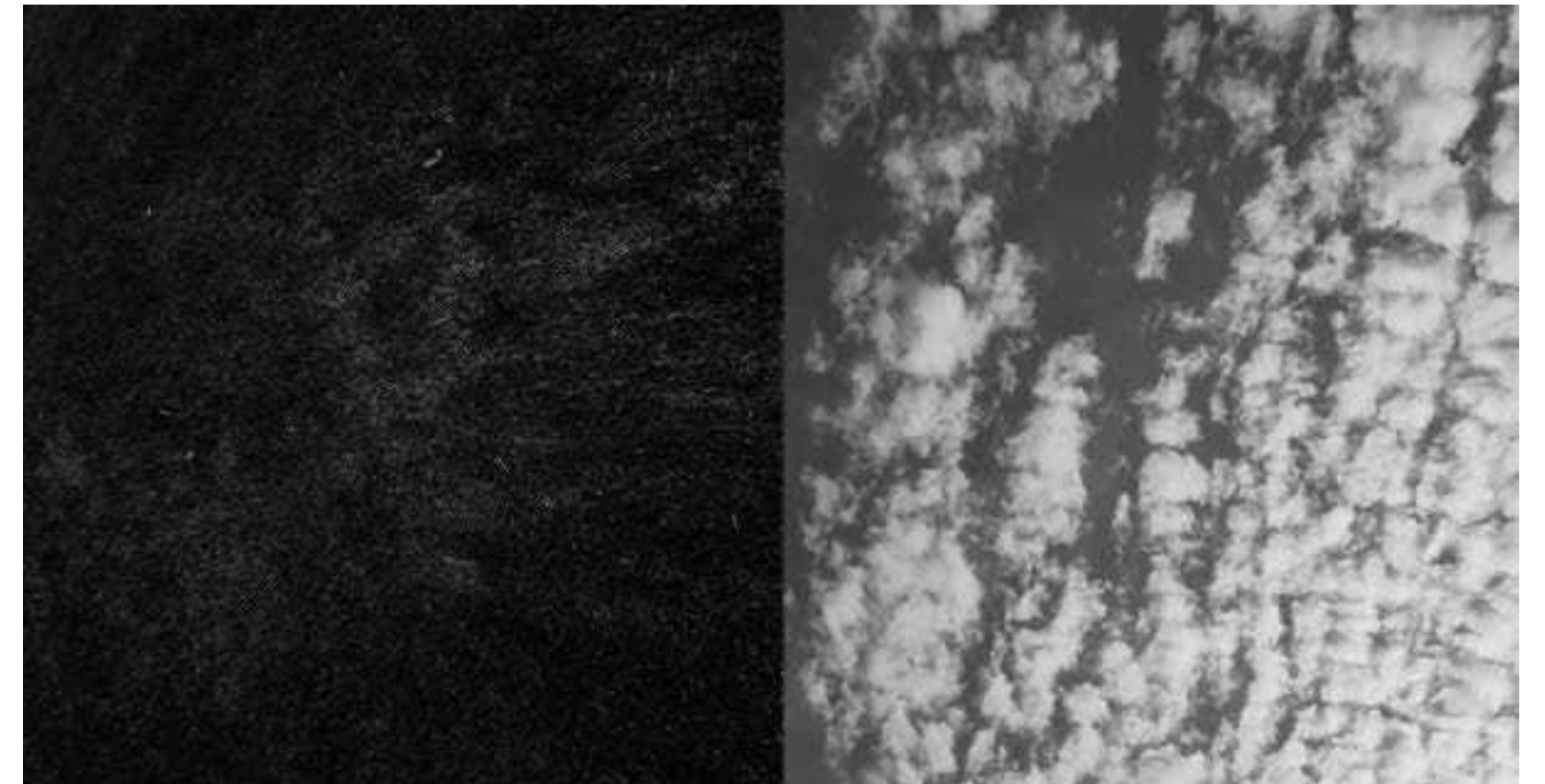
가을 한쌈

김미련 Miryeon Kim



The END, 2022

, 80x64cm Everyday Photo Pigment print on Rice paper
항암을 마치고 난후 The END라고 라인컷을 머리카락에 음각으로 넣고 2달동안 새 머리카락이 자라나오는과정을 촬영한 사진 기록 작업



My Body-Print in Nature, 문화비축기지 서울, 2022

'나의 지치고 아픈 몸을 자연에 뉘었다.
몇시간 꿀잠으로 자연에 각인된 나의 몸'

김성미 Seongmi Kim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록
No6 -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번지 문화비축기지



이 프로젝트는 존재하나 존재성 없는 식물 - 작고 보잘 것 없으나 살아서 빛나는 식물들에 대한 기록으로 서식지, 생육환경, 이주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리서치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오랜 시간 암벽으로 둘러 쌓인 국가기밀시설 「석유비축기지」가 2013년 그 비밀스런 공간을 드러내고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탱크기지에는 잘 정비된 조경과 산책로가 있었고 그 틈과 틈 사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는 친숙하다 못해 흔하고 너른 이름 모를 식물들이 스스로 이동, 정착, 번식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번지「문화비축기지」에서 벽면을 뚫고 자생할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여 생태계를 교란 시킨다는 서양등골나무, 꿀을 잘 모으게 도와 달라는 벌들의 부탁으로 하늘서 흰 물감을 뿌린 제우스 덕분에 탄생했다는 토끼풀, 옆으로 자라는 바랭이, 비수리-야관문, 소리쟁이, 닭의 장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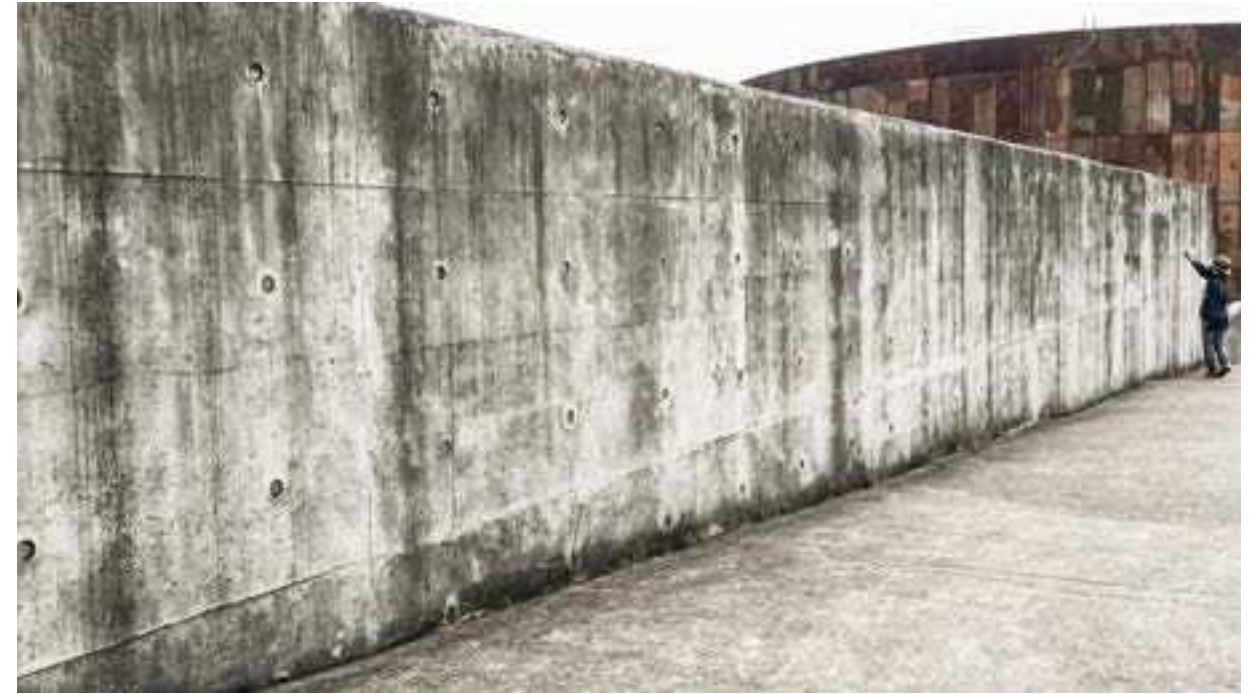
김성아 Sung A Kim

공공미술 모래-시간 사진, 문화비축기지 서울, 2022





누워 본 하늘 _ 2022.10.15-16



0.5L 물의 길이_수평_ 2022.10.16

0.5L 물의 길이_수직_ 2022.10.16



0.5L 물의 넓이 _ 2022.10.16



검정찾기



#13 Scene 0.1 거미줄과 나 Spider web &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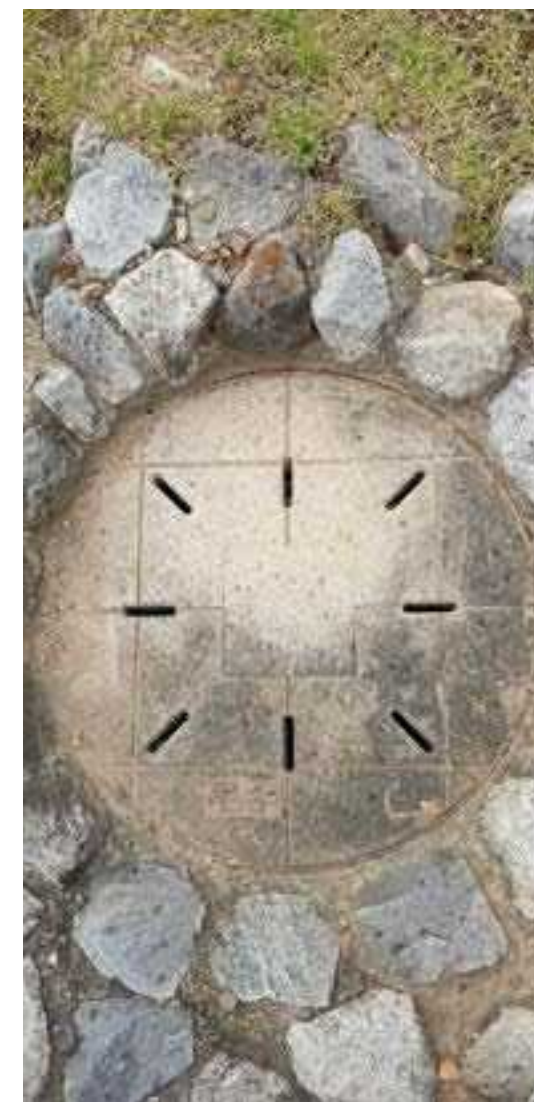


#13 Scene 0.3
그물망과 돌 Safety net & Stone



#13 Scene 0.2
소화통과 나무 Fire extinguisher & Tree

박우찬 Uchan Park



성상식 Sangsik Sung

자연의 경계

자연과 자연이 아닌 것의 경계는 무엇일까? 사람의 손을 거친 돌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돌을 놓고 바라본다.



게릴라즈

녹색 게릴라 활동을 진행 하면서 점점 자연에 익숙해져 가는 작가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짐
 사람의 필요에 의해 쓰여 지고 남겨진 나무 밑동 위에 돌을 올려 사라진 나무의 무게를 표현하였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은 우리들이 지고 가야할 짐이자 운명이다.





오혜린 Hyerin Oh

이끼 기념비
a moss monumentvwm

물을 주었지
이끼가 자라더라
대수롭지 않았어
익숙했으니까

물을 더 주었지
자라고
자라고
자라고

깨어나라고

물을 주지 못했어
물이 너무 많아져서

물이 너무 많아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떠내려가서

사라져버렸지

찾으려고 했지
떠내려가봤어
찾을 수가 없더라

어디로 간 걸까

다시 물을 주었지







경청 1



경청 2



경청 3



경청 4



경청 5











Balloon(스틸컷1), 영상5min, 문화비축기지2022



Balloon(스틸컷2), 영상5min, 문화비축기지2022
Balloon(스틸컷3), 영상5min, 문화비축기지2022





Untitled 1, 문화비축기지 2022



Untitled 3, 문화비축기지 2022



Untitled 2, 문화비축기지 2022
Untitled 4, 문화비축기지 2022

임정서 Jungsoh Sue Lim





2022-10-18 14:00

명당을 찾아서 1.

명당을 찾았다. 발을 딛는 순간 폭신했고 솔향기 진하게 안식감을 줬다. 온옴한 빛에 적당한 그늘, 직감이 왔다. 매봉산 끝자락에 이르러 발견한 부드러운 곳. 인적마저 드물어 참으로 편안하다. 바람도 차지않다. 다섯 그루의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두평 넘짓한 편편한 공간에 자리를 깔고 앉아본다. 이윽고 살인 진드기의 공격을 받는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그 앞 벤치로 옮겨 앉아 몸의 가려움을 느낀다.



명당을 찾아서



Hello world 百衲松下 (feat. 高수현, 어블링)





harming day. 바람이 불어

charming day. 바람이 불어



charming day. 바람이 불어





뒤집다, 문화비축기지, 2022



꿈다, 문화비축기지, 2022
낙엽은 언제나 앞줄기가 아래로 향한다. 나는 앞줄기가 위로 향하게 꿈었다.



긋고 듣다, 문화비축기지, 2022





누리장 나무



낭아초



싸리꽃

매봉산에 온 풀 2022.10.15



울산 도깨비바늘



큰금계국

매봉산에 온 풀 2022.10.15



스카비오사콜롬바리아

조재원 Jaeweon Cho

낙엽이 대신 말해주니 고맙다

1983년 떨어지는 낙엽에게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캠퍼스를 같이 걷고 있던 친구는 화를 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며칠전 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만난
친구에게 그때 화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친구의 머리엔 하얀 낙엽이 내려와 있었다



오늘, 하루를 넘기다





New Hair, 문화비축기지서울 2022



만추환담, 문화비축기지서울 2022



아이가 풀에게 놀이터를 내어준다, video, 문화비축기지 서울, 2022









흙을 움켜쥔 그들은



뚝

Alejandro Jaime Carbonel (Peru)



Water Union Project, made in collaboration with Gonzalo Palma

This project is located in a unique ecosystem in the north of Peru, the mangrove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of two bodies of water in the same space: the sea and the river, generating a series of unique living forms in the territory. This interaction was considered on two scales, one macro (the sea) and the other micro (the river), both scales creating new forms of life, from microorganisms to crustaceans and insects, large trees such as mangroves, to large-scale animals such as alligators.

The artistic action consisted in representing the interaction of both scales. To do this, a series of channels were dug on a small peninsula on both sides, which divides the river from the sea. When the tide arrives, the waters of both bodies of water enter progressively through the channels on both sides, creating a pant closure effect until they finally mix completely and that portion of land disapp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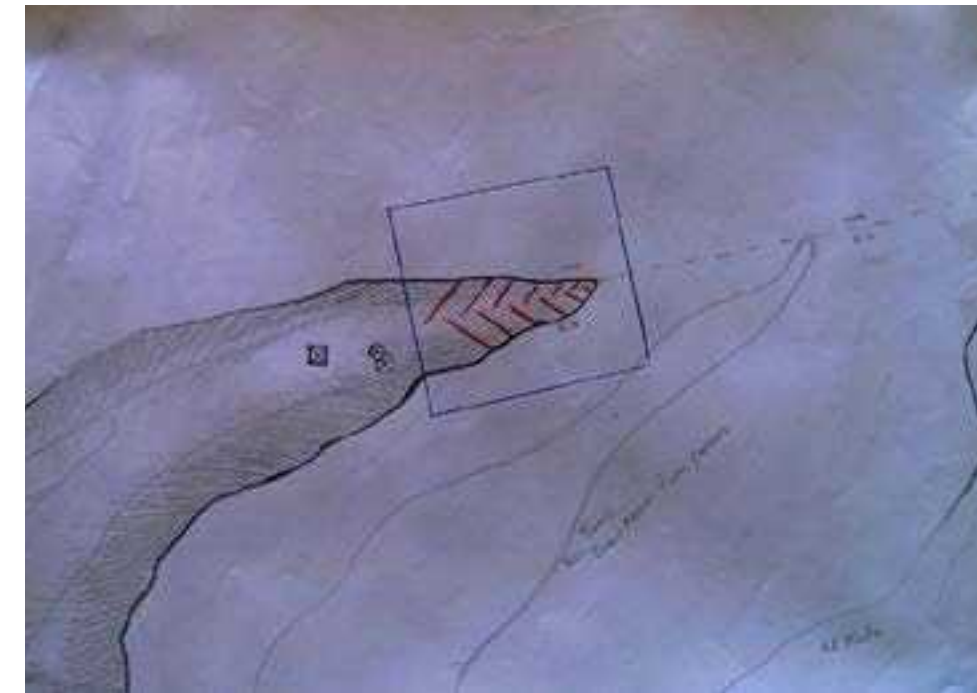
This proposal of nature art is ephemeral, it lasted as long as the change of the tides lasted; also it contemplated an in situ work of drawings through which an attempt was made to understand the space, the experi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one day one had to travel by river to get to the place).

Water Union 프로젝트, Gonzalo Palma와 협업

이 프로젝트는 페루 북부의 독특한 생태계인 맹그로브에 위치하며, 같은 공간에서 바다와 강이라는 두 개의 수역이 상호 작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일련의 유기적인 독특한 형상을 생성합니다. 이 상호 작용은 두 가지 규모, 하나는 거시적(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강)에서 비롯되었으며 미생물에서 갑각류와 곤충, 맹그로브와 같은 큰 나무, 악어같은 생명체를 만듭니다.

작업은 서로 다른 이 둘 사이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강과 바다를 나누는 양쪽의 작은 반도에 일련의 수로를 팠습니다. 밀물이 오면 양쪽 수역의 물이 양쪽의 수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들어가 마침내 완전히 섞이고 육지의 해당 부분이 사라질 때까지 바지 클로저 효과를 만듭니다.

이번 자연미술 작업은 일시적이며, 조류의 변화와 함께 한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공간, 경험 및 장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한 현장 드로잉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강을 건너야 그 장소에 갈수 있습니다).





Anurak Tanyapalit (Thailand)

I record this video after I back from Korea and then I stay in Bangkok few day before back the Chiang Mai. On the video recording on the way that I'm going to airport to take flight to Chiang Mai during rush hour and heavy rain in the same time and some part in Bangkok are flooding. Many people stuck on traffic jam so long time.





Carlosde Gredos (Spain)



The path of the tree, the path of dawn. I carve. 2022. Cerro Gallinero Art and Nature Center. Hoyocasero, Ávila, España. Carlos de Gredos. Still image



The antigravity is random. La antigravedad es aleatoria. 2022. El Arenal, Ávila, España. Carlos de Gredos. Still image



The cosmic egg. El huevo cósmico. 2022. Hoyocasero, Ávila, España. Carlos de Gredos. Still image



The footprint before the footprint. La huella antes de la Huella. 2022. Hoyocasero, Ávila, España. Carlos de Gredos. Still image

Evelyn Grzinich (Estonia)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biomass is in the soil, making it a critical habitat for biodiversity. Millions of species, trillions of microscopic organisms...soil is a complex ecosystem. Life on Earth feeds from soil, and this is where it returns to transform and sprout again.
Save soil!



Jahanbakhsh Amirbeygi (Iran)



Difference- Entry In Exchange of Exit
Hamedan, Iran
2019



My Movement, Our Movement
Tehran, Iran
2022



The Wise Mammal, The Awake Partridge
Zardanja, Isfahan, Iran
2021



Vicious Cycle
Zardanja, Isfahan, Iran
Red iron oxide, running drinking water
2021

John Grzinich (Estonia)

It is a singing wind harp installation powered only by wind. Details are here:
<https://www.sonicacts.com/biennial/biennial-2022/programme/powerless-flight>



Jordi González (Spain)

Reason and Nature

A square made around a pine tree with dried pine leaves. 1x1m. Serralada Litoral – Coast range (Alella)



Sunrise

Worked on Ocata beach (15km from Barcelona) at sunrise 8 am. The work follows the Sun declination at 8 am (could be the title). 10m long, 20 width, 20 deep.



Kintsugi: Parc Serralada Litoral, Catalonia, Spain, 2019



Invisible garden: Catalonia, Hilarium Festival 2022

JYoohyun Lee (USA, Korea)

2022.10.15.
홍콩 라마섬 한 귀퉁이.
집이 온갖 열대나무들과 생명력 강한 풀들이 자라는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바빠 집 주변 관리를 소홀하면 어느새 대문이 가려질 정도로 식물들이 무성해집니다.
오늘, 챙이 넓은 모자와 팔다리를 가리는 옷, 발목을 가리는 양말을 신고 풀숲에 들어가 '미안하지만 나의 자리'라며 선을 긋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분간은 또 내 자리, 네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그러는 동안 관찰하고, 발견하고, 얻은 것들입니다:

Oct. 15th, 2022
Somewhere on Lamma Island, Hong Kong.
I live in the midst of tropical trees and weeds.
If I get too busy to keep up with housekeeping, the plants creep up from all over the place and cover up the paths.
Today, I put on a wide-brimmed hat, long sleeves to cover my limbs and long socks. I went into the weeds and acted "sorry, but here is the boundary".
And so, we found the boundary again for a while.

Following are the things I observed, discovered, and resulted in:

Bardo [동영상; 04:12]
<https://youtu.be/7fc9O2vMUek>





I found a letter from school to me, and it looks like this [동영상; 01:10]
<https://youtu.be/xmNXM6tiObA>

With Intention [콜라주]



Kaiqin Zhang (China)

title: Disinfection

Here is my feeling about the city in these 3 years.
The soil for our roots nowadays is a sort of "nature+machine" rather than "nature".It is a "man-made nature". How we grow in this soil and what kind of attitude we are having confront to this soil? We are wrapped by plastic and so afraid of environment, people, history around us. What's next?
venue:Shenzhen, Guangdong, China
year:2022.10



Karin van der Molen (Netherlands)

White Flag

White Flag is an ongoing series in which I bear witness to situations that are urgent, need attention, but I cannot change them by myself. I surrender, but I do not look away, I bear witness. These two pictures bear witness to the deplorable state of the forests in my country, suffering from drought, pollution and human intervention,.



Klega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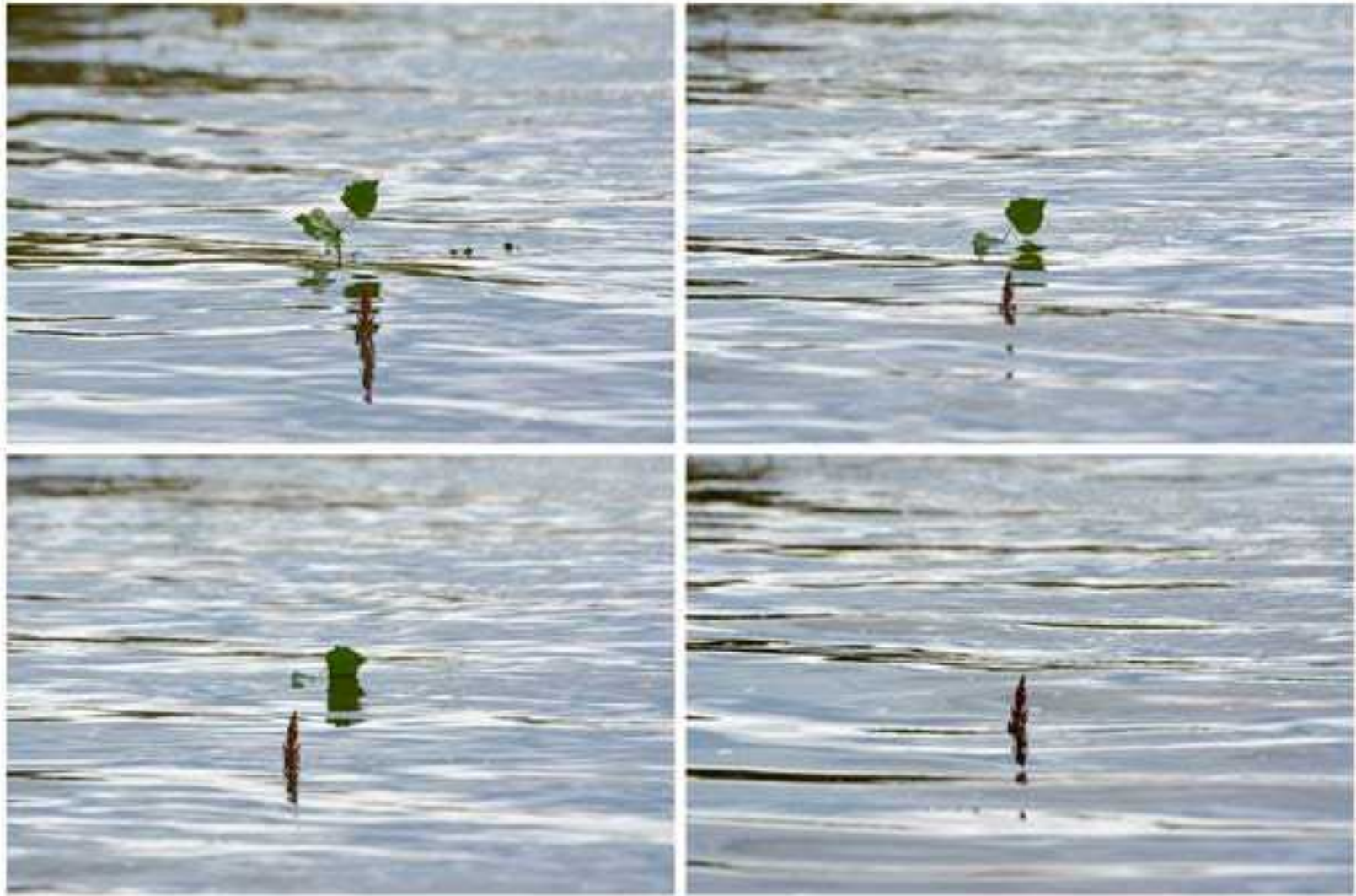
grass over a landing plane, 2022



splitscreen of grass, 2022

grass covering flower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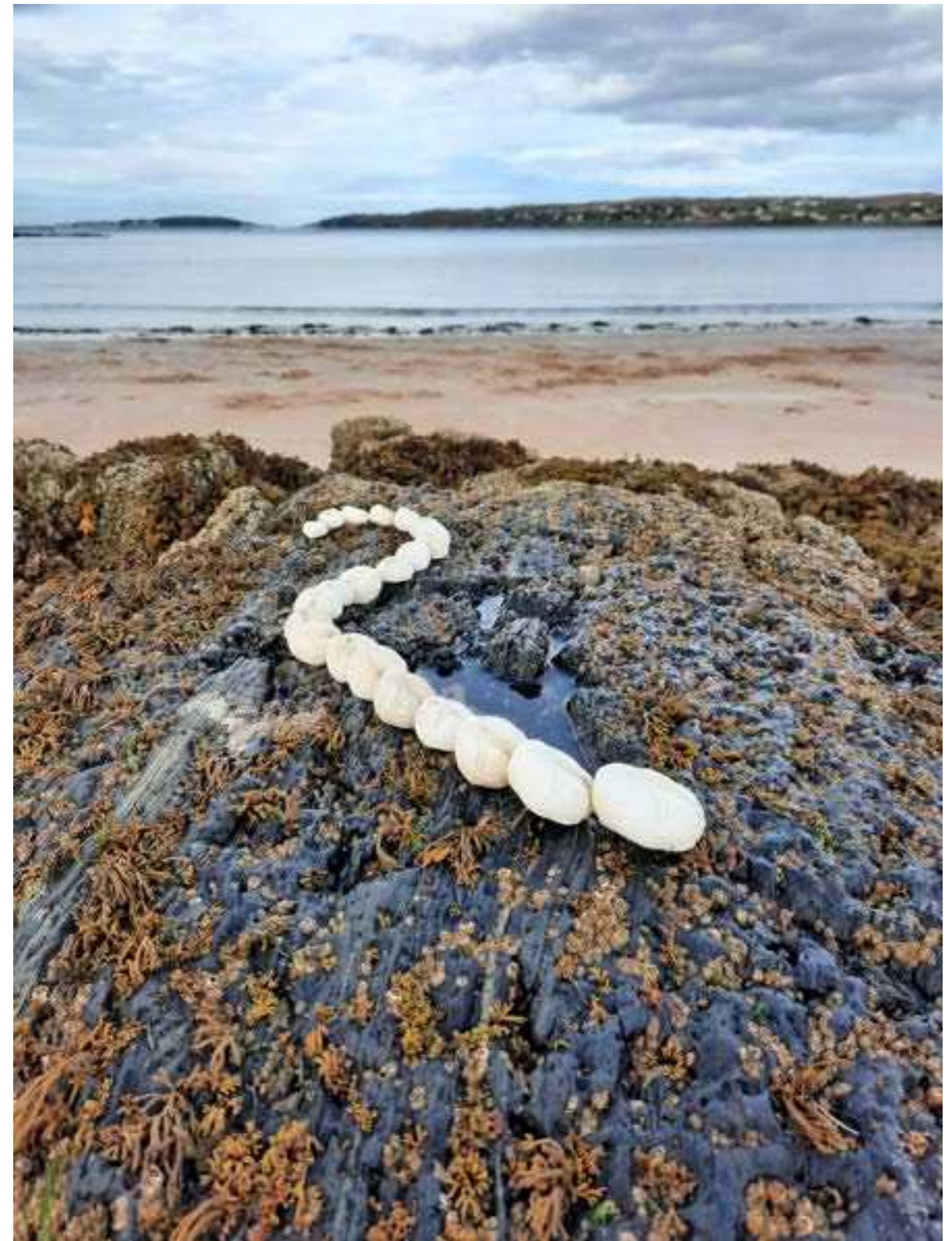


a leaf sinks into the rive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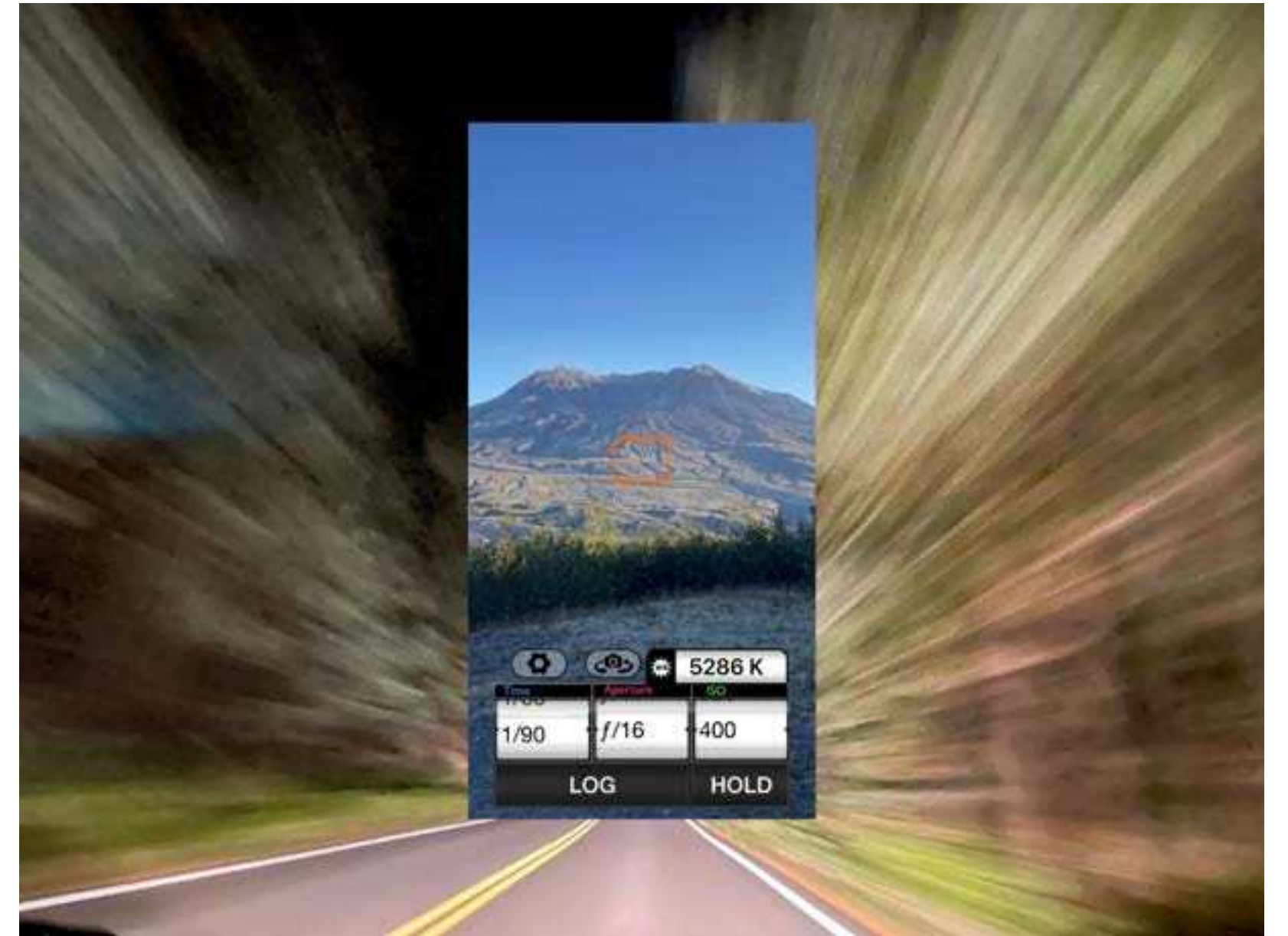
drew smiley on a single corn, 2022

Lynn Bennett Mackenzie (Scotland / UK)



Marty Miller (USA)

I just went to Mt. St. Helens. It was a powerful experience. I don't think the photos can communicate as well as the feeling inside the mountain (or inside me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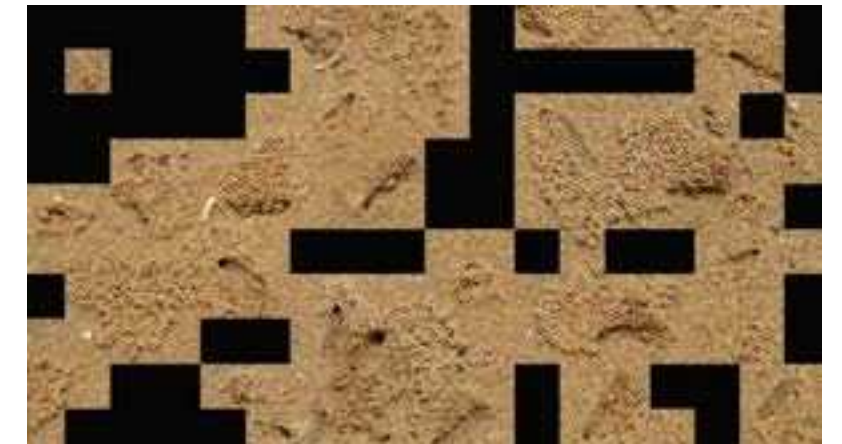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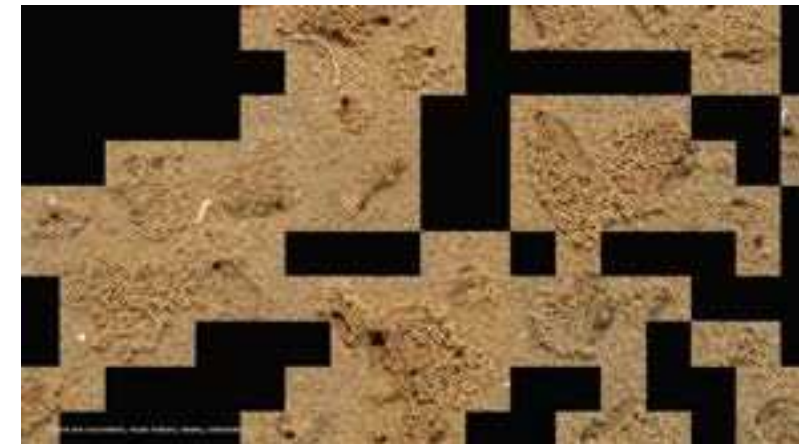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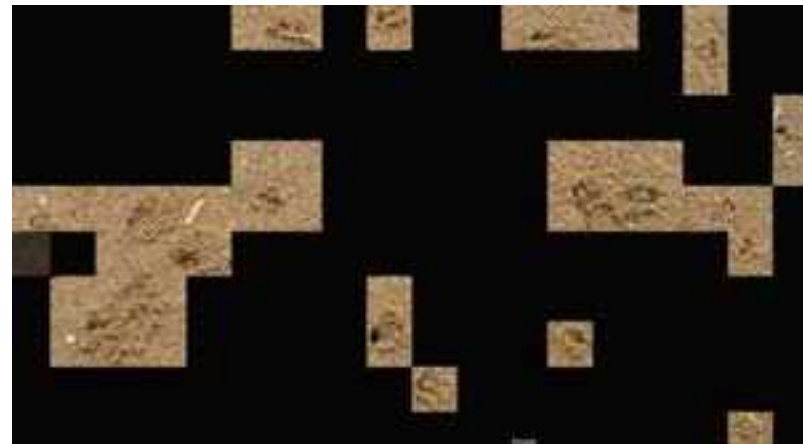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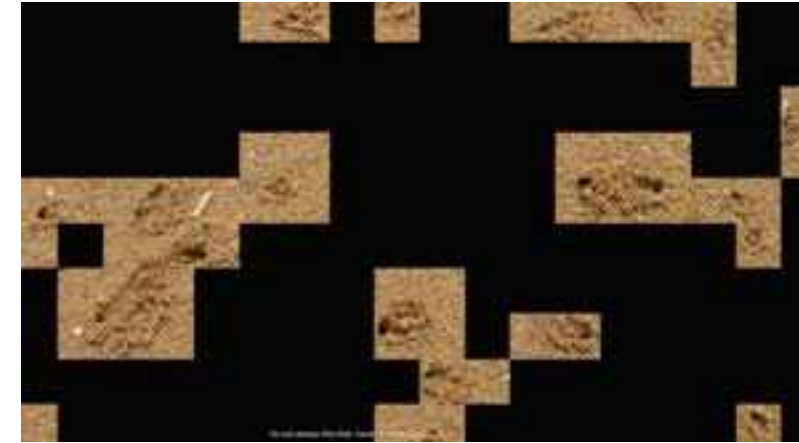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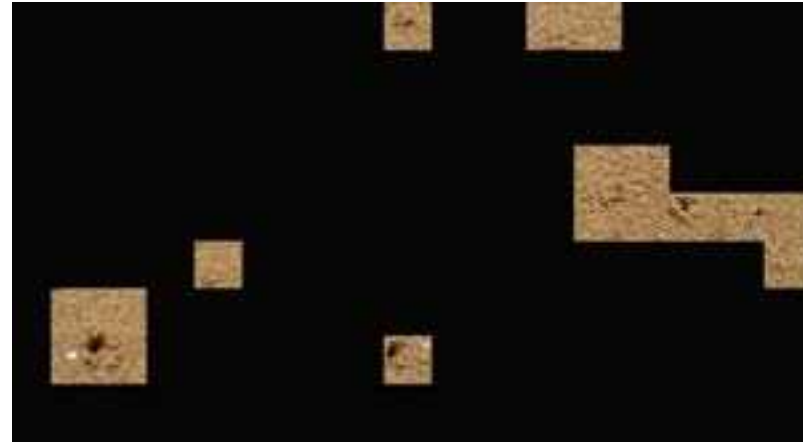
Mrugen Rathod (India)

Roji Reti

A 24.08.22.mp4

At the junction of the river and the ocean, I found the tiny crab community busy in their mundane activity of digging valuable sand and eating plankters, recharged by the waves of the everyday tide. A few hundred meters away the trucks and heavy JCB (giant diggers) machines were also busy in their mundane activity of mining sand. The video documentation of the sand mining zone was impossible because of the illegal nature of their activity. I used a discrete method of documentation – recording sounds of truck drivers, JCB operators, local security guards, and some farmers who survive on the river.

Roji Reti title comes from the word “Roji Roti” which means, everyday earning for a loaf of bread or food.



Sergi Quiñero (Spain)

Marca Mark

Segments de canya americana i pigments naturals (noguerines)
Forat excavat de 28 x 28 cm i 5 cm de profunditat
Restes de plantes mortes recol·lectades a l'entorn. Alçada de 7 cm.
15-10-22, de 8:00 a 9:30 h.
Moli Vell (Tarragona, Catalunya)

American cane segments and natural pigments (nogalins)
Excavated hole 28 x 28 cm and 5 cm deep
Remains of dead plants collected in the environment. Height of 7 cm.
15-10-22, from 8:00 a.m. to 9:30 a.m.
Moli Vell (Tarragona, Catalonia)

Una obra de Sergi Quiñero
A work by Sergi Quiñero



ANELLA VERDA

ANELLA VERDA is a hybrid project consisting of three artistic actions that are presented in video and that tell us abou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ity and the semi-natural environment of the green ring of Tarragona (Spain).

The audiovisual direction was in charge of Nani Blasco, while Sergi Quiñero was in charge of the art. The localization, scripting and recording process by the two creators lasted from late winter to early spring 2021.

Anella Verda, which closed in September 2021, has become a reality thanks to the subsidy for professionals in the cultural sector from Tarragona City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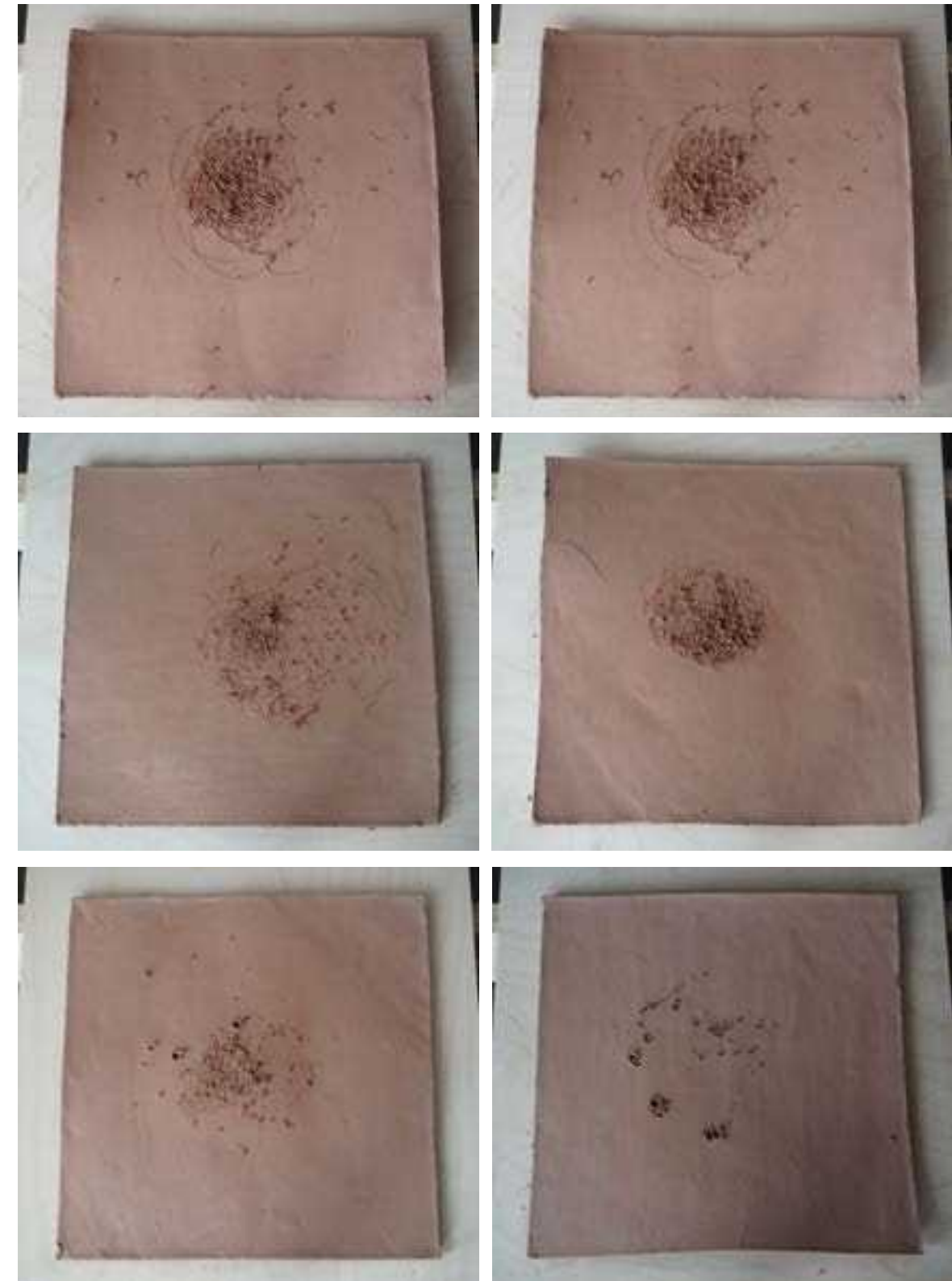
It premiered at the headquarters of Casa Canals, Mèdol – Contemporary Arts Center, on Thursday, April 7, 2022, as part of the "Physis" (Green Culture) exhibition.



Simon Whetham (UK)

A Escrita das Fontes images

<https://www.simonwhetham.co.uk/binauralnodar>



Stridom van der Merwe (South Africa)

To Dress a Tree

Date of creation: 10 October 2022

Location: Jonkershoek, Stellenbosch, South Africa.

Description: Cutting leaves from a plant in the forest and attach to 3 trees to look as if been dressed.

Ephemeral



Takako Yamaguchi (Japan)

Sing by the Walk

I am now in Fukushima. It is also the land where all the villagers had to flee for a while due to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Now it is safe to grow crops and people can live there. However, access to the decontaminated mountains is still not officially permitted. I have twice hiked the hiking trails on that mountain. For research.



Tatsunori Fujii (Japan)

Portrait of The Hideout
silent slideshow
Location, Japan
Date, 2021

My expression uses video and photography along with installations.
It is my own gaze and It reflects my own state of mind.





Uku Sepsivart (Estonia)



Kitchen Iprovisation
Pearl Trickle



View form Topu
Field in Tanska
Apple Orchard Takeover



Feastround Composition

Leaves and Moss Round Composition

Lightninglike Moss with a Background

Fruit Slit / Fruit of the Earth

Fruit Slit / Fruit of the Earth View 2



Pearl Composition

h1n5

Pearl tricle from spruce

Carbon footprint

Camouflage

XIAO Li (China/Japan)

Celebration autumn Harvest – Seeds

Venue: A park in Nara Japan

Year: 2022

Because autumn is the harvest season.

That is the reason I use seeds as the subject of my work.

Firstly go to collect the autumn seeds around me.

Such as Agern, Thuja occidentalis, corynocarpus Laevigatus.

Secondly, use these different seeds to make patterns like necklaces.

Finally the pattern made from seeds will hang on the tree it belongs to.

People can take a walk and enjoy finding the artwork in the park.





Zehra Khan (USA)

Henna on leaves on myself

October 15, 2022
Chicago, Illinois, USA

I collected leaves from around my neighborhood. I live in Chicago, Illinois, in the middle of the USA. I painted the leaves in henna and imprinted them onto my body.

My father is from Pakistan
and he was born in Hyderabad, India.
My mother is from Idaho, USA.

Some important trees in my life:
the ginkgo tree near my school in Paris,
the catalpa tree in Provincetown that was struck by lightning,
all the maple trees that produce winged helicopter seeds, which I stick on my nose like a rhinoceros horn.

The henna came from a supermarket in Kathmandu, Nepal.
I was there one year ago,
living with a person named bug
in Jupiter's family home.

Four years ago I was in Korea,
in the home Wongil and Moon built.
I painted shadows on my body
and played with stones.







gg

Four Season nature-art Workshop